



제주문화가 이슈&현장 학예연구직렬 설자리는 어디

학예사 26명에 학예관 겨우 1명... 승진 통로 실종

농업연구직 이어 인원 많지만 학예연구관 승진 기회 못가져 임기제 인력 합쳐도 4명 불과 행정·시설 등 복수직위 명시 학예직은 우선 순위서 밀려나

전시 기획, 학술 연구, 소장품 관리 등을 맡는 학예연구사. 젊은층이 선호하는 직업 중 하나지만 제주 공직사회에서 학예연구사들의 비전은 불투명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승진 기회가 있지만 복수직위로 운영되면서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학예연구사 인원에 비해 학예연구관 수가 턱없이 부족한 점은 그에 대한 방증일 수 있다.

▶문화 관련 시설장 다수 복수직 운영=7월 현재 제주도문화정책과,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도립미술관,

세계유산본부 등 제주도에 배치된 학예연구사는 27명(임기제 1명 포함)에 이른다. 반면 학예직이 오를 수 있는 학예연구관은 임기제 3명을 더해야 간신히 4명이 된다. 다른 연구직렬에 비해 불균형이 심각하다. 농업연구직은 연구사 37명에 연구관이 15명이다. 환경 분야는 연구사 13명에 연구관이 5명으로 파악된다. 보건 분야는 연구사 7명, 연구관 3명에 달한다.

학예연구관이 갈 수 있는 기관들이 행정직, 시설직 등 복수직위로 운영되면서 상대적으로 학예직이 설자리가 부족하다.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제주현대미술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학예연구관을 앉힐 수 있다. 제주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문화기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학예연구관을 임명하도록 했다. 돌문화공원 공원운영과장 역시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을 둘 수 있다. 제주도 해녀문화유산과장도 복수직위로 지방기술서기관이나 지방학예연구관에게 맡긴다고 했다. 이들 중에서 지방학예연구관이 차지할 시선은 임기제 공무원을 발령냈던 제주현대미술관 뿐이다.

▶"임기제 말고 내부 승진으로 앞지르자"=세계자연유산과 문화재의 보호·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에서도 학예연구직의 입지가 좁다. 세계유산정책과, 역사문화재과, 자연문화재과, 문화유적관리과를 두고 있는 세계유산문화재부를 보자. 세계유산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역사문화재과장과 문화유적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자연문화재과장은 지방농지사무관이나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이 접근

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학예연구직의 수준이 곧 박물관·미술관 운영 활성화와 연결된다고 말한다. 학예사의 전문성을 키우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임기제 공무원으로 학예연구관을 공모 채용하는 방식보다 일정한 근무 연한에 다다른 학예사의 내부 승진을 통해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일각의 목소리도 설득력이 있다. 외부에서 영입된 인물이 기존 조직과 소통하지 못할 경우 학예직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 인력 손실을 불러온다는 주장이다. 모 학예사는 "학예연구직이 농업연구직에 이어 다수를 차지하지만 일부에서는 아직도 전문 분야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학예연구직렬 복수직 해소 등을 통해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선희기자

순응에서 저항, 침묵에서 발언으로



김봉준의 '세민(世民) 아리랑'



임옥상의 '민들레 꽃씨'

포지션민주 개관기념전 민중미술 1세대 19인 작품 8월 6일까지 '민씨연대기'

한국 민중미술 1세대 작가들의 작품이 제주에 부러졌다. 지난 26일 막이 오른 포지션민주(제주시 관덕로 6길 17 2층) 개관기념전 '민씨연대기(氏年代記)'다.

황석영 원작의 서사극 '한씨연대기'(1985)에서 제목을 따온 이번 전시에는 동학의 횃불에서 대통령 탄핵의 촛불까지 굴곡진 역사를 지나오면서도 '민'의 정신을 지켜온 이 나라 민중들의 위대함을 담은 작품이 만날 수 있다. 1980년대 초반 이래 새로운 리얼리즘 미술운동을 펼쳐온 1세대 작가 19명의 작품들이다.

이들은 순응에서 저항으로, 침묵에서 발언으로, 환원에서 확산으로 옮겨가며 진일보한 민중미술운동을 보여줬다. 거기에는 1889년 동학농

민전쟁에서 3·1운동과 독립운동, 제주 4·3과 여순항쟁, 4·19의거와 5·18 광주항쟁, 87년 6월 민주화운동을 거쳐 2016년 촛불혁명을 이르는 장대한 서사가 있다. 전시는 8월 6일까지 계속된다.

포지션민주주는 '민의 위치에서 민의 입장에서 지켜나가는 민의 진지'로 '4·3민중항쟁의 정신을 기반으로 한반도와 동아시아, 나아가 전지구에 평화예술운동을 매개하는 비영리 예술공간'을 표방하고 있다. 이 전시를 시작으로 반분단 운동인 제주 4·3의 뜻을 잇는 작품을 선보이는 '평화예술', 제주도 미술의 종다양성을 살펴보는 '제주작가 초대전'을 개관기념전으로 진행한다. 문의 064)725-4410.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갤러리 빛낸 '제주를 사랑한 화가들'

현인갤러리 8월 8일까지 변시지·장리석·김창열전

김창열, 장리석 그리고 변시지. 제주도 노동형 현인갤러리(관장 김형무)가 선대인 1970년대부터 공간을 운영하며 수집해온 미술품 중에서 이들 3인의 작품들로 여름 기획전전을 펼치고 있다. 이름해서 '제주를 사랑

한 화가들' 전이다.

변시지(1926-2013)는 제주를 대표하는 작가로 꼽힌다. 지금도 여전히 '폭풍의 화가'로 불리는 그는 환희와 화면이 넘실대는 그만의 제주화를 남기고 떠나갔다. 현인갤러리는 고인의 작품을 모아 '변시지 유작전'도 열었다.

장리석(1916-2019)은 한국전쟁 시기 제주에 머물렀던 인연이 있다.



변시지의 '섬 이야기'

해녀 등 파도 일렁이는 제주 풍경을 그렸다. 지난 3월 세상과 이별했지만

제주도립미술관에는 고인이 생전에 제주도에 기증한 작품들로 상설전시실인 '장리석 기념관'이 꾸며졌다.

김창열(1929-)은 제주도 환경면 저지문화예술마을에 그의 이름을 딴 미술관이 있다. '말방울 작가'로 그 역시 장리석처럼 한국전쟁 시기 제주로 피난했던 경험을 가졌다. 제주도에 작품을 기증한 일이 계기가 되어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이 건립됐다.

전시는 8월 8일까지 이어진다. 문의 064)747-1500. 전선희기자

문화가 짝지

제주-대구경북 서예교류전

사단법인 제주도서예가협회(이사장 고영진)는 지난 27일부터 문예회관 1전시실에서 제주-대구경북 서예교류전을 열고 있다.

서른 번째 제주도서예가협회전을 겸한 이 전시에는 제주 45명, 대구경북 50명이 참여하고 있다. 제주도서예가협회는 5년전 대구경북서예가협회와 교류전을 가졌다. 고영진 이사장은 "서로 간 서예문화의 발전상을 엿볼 수 있는 자리"라고 했다. 전시는 8월 1일까지.

제주목관아 과거시험 한마당

제주목관아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인 이달 31일 낮 12시30분부터 제2회 제주목관아 과거시험 한마당을 연다.

한글서예사랑모임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선비복을 입고 과거시험을 재연하는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예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현명한 한글서예사랑모임 이사장의 특강에 이어 과거 시험 한마당을 치른다. 서화체험, 소원지 불이기도 마련된다. 문의 010-9838-6724.

YMCA오케스트라 교류 연주

제주YMCA유스오케스트라(지휘 홍정도)와 광주YMCA드림청소년오케스트라(지휘 강재진)는 8월 1일 오후 7시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교류 연주회를 갖는다.

이날 연주회에서는 로시니의 오페라 '도독카치' 서곡,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 케텔베의 '페르시아인 시장에서', 시벨리우스의 '핀란드어' 등을 들려준다. 강주성(SJA제주국제학교 5학년), 김근철(제주대 음악학부 3학년) 학생이 협연을 맡는다.

LED 로봇 댄스 우수 사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AR기술 기반 LED 로봇 댄스 공연(로봇스퀘어)이 최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LED 로봇 댄스 공연은 지방 문화산업기반 조성사업으로 진행됐다. AR 기술 기반 인터랙티브 모드가 융합된 공연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상품시장 확대, 지역 연계 문화관광산업 발전 촉진을 통해 지역산업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귀포 천지연 여름음악축제로 오세요

서귀포 천지연에 음악의 향기가 흐른다. 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 서귀포시지부(지부장 김승철)가 8월 4일 오후 5시부터 서귀포천지연여름음악축제를 펼친다.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서귀포여름음악축제는 자연과 어우러진 천지연 야외공연장에서 여러 빛깔 무대를 무료로 즐길 수 있는 행사다. 인디밴드에서 클래식 앙상블까지 다채롭게 준비됐다.

출연진은 가수 이미소, 인디밴드 늦은 오후, 리틀소울앙상블, 해솔탈레단, 서귀포브라스퀸텟, 성악앙상블 포르테, 첼로앙상블 하드 케이스는 클래식, 재즈, 팝, 영화 음악 등을 넘나들며 2013년부터 꾸준히 연주활동을 벌이고 있다. 문의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이중에서 인디밴드 늦은 오후는 어쿠스틱 기타 선율과 아름다운 화음이 어우러진 음악을 펼쳐놓는다. 리틀소울앙상블은 소울성악앙상블 소속 어린이 성악앙상블 단체다. 해솔탈레단 역시 아이들로 구성됐다.

서귀포브라스퀸텟은 1999년부터 활동해온 금관앙상블로 음악으로 '문화예술의 도시 서귀포'의 이미지를 그려왔다. 성악앙상블 포르테는 소프라노 이채영, 테너 유태환, 베이스 이승수로 이루어졌다. 남성 첼리스트들이 참여한 첼로앙상블 하드 케이스는 클래식, 재즈, 팝, 영화 음악 등을 넘나들며 2013년부터 꾸준히 연주활동을 벌이고 있다. 문의 010-2314-8146. 전선희기자

마음이 기억하는 여행
한진관광
 KAL 투어 KALPAK

“한진관광 멤버십!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세요~”
 예약 문의 : 제주지점 ☎ 742-7217 www.KALTOUR.com
 제주시청점(아색투어) 758-2000

북경/백석산 4일

제주-북경-래원(1)-백석산-북경(1)-천안문-자금성-금연왕조소-더플레이크-북경(1)-제주

최소 출발 인원: 10명 *선택관광 있음

8/1, 10, 15, 9/12 W 790,000
 8/29, 30, 9/9, 14, 20 W 710,000

북경/만리장성 4일

제주-스치하이-북경(1)-만리장성(도보)-이화원-발마사지-금연왕조소-북경(1)-천안문-자금성-왕부정거리-북경서커스-북경(1)-제주

최소 출발 인원: 10명 *선택관광 있음

8/1, 10, 15, 9/12 W 640,000
 8/29, 30, 9/9, 14, 20 W 560,000

동경/하코네 4일

제주-나라타(1)-하코네(1)-아사리(1)-아사리(1)-동경(1)-신도청전망대-메이지신궁-아사리-치이나타-미나토미리(1)-아사리(1)-부두공원-동경(1)-나라타-제주

최소 출발 인원: 15명

8/13 W 1,120,000 + ¥3,000
 9/10, 29 W 1,070,000 + ¥3,000

오사카/나라/교토 4일

제주-오사카(1)-교토-후시미-리타이-정수사-신덴지-아라시야마-노노미야지-도계초고-오사카(1)-나라-동대사-사슴공원-오사카성-신사이바시-도통보라-오사카(1)-제주

최소 출발 인원: 10명

8/26 W 920,000 + ¥3,000
 9/21 W 900,000 + ¥3,000

협찬: KOREAN AIR 5G

*선상품 유류할증료 포함입니다.